

한국의 주빈국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 내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글 · 최영창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한국관 전경

2005년 10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렸다. 이 기간을 전후해 국내 신문과 방송이 독일 현지에서 쏟아낸 보도와 독일 관객들이 나타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번 도서전과 독일인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다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말 국내 언론 보도처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행사가 독일인들의 호응과 관심을 끌었습니까.”

한국이 주빈국(Guest of Honour)으로 참가한 <2005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을 취재하고 돌아온 기자가 지난 한달 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사실 세계 최대(最大)·최고(最古)의 도서전이라고 하지만 출판계와 문단, 언론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동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그저 먼 이웃나라에서 열리는 출판인들의 잔치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 도서전 기간을 전후해 국내 신문과 방송이 독일 현지에서 쏟아낸 보도와 메세(박람회)장 내 주빈국관과 한국관을 비롯해, 한국 문인들의 낭독회장과 공연장을 가득 메운 독일 관객들이 나타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번 도서전과 독일인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다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의 반응과 도서전의 현장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조직위원회(위원장 위르겐 보스·이하 조직위)는 올해 도서전의 성공을 자평하는 분위기다. 도서전이 끝난 직후 조직위는 세계 101개 국가에서 7,200여 개 사가 참여했으며 5일 간의 도서전 기간 중 약 28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세계 110개 국가에서 6,691개 사가 참가하고 27만여 명이 관람한 지난해와 비교해 참가국 수는 줄어든 반면, 전시참가 업체나 방문객 수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눈에 드러난 수치보다 조직위 관계자들은

언론의 관심과 주빈국관 및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서 도서전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홈페이지(www.frankfurt-book-fair.com)는 “주빈국 한국에 대한 각광이 이번 도서전을 엄청난 성공으로 이끌었다”며 “특히 주빈국관 전시는 만장일치의 갈채를 받았으며 유럽에서 한국을 문화국가란 새로운 이미지로 각인시키게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위르겐 보스 조직위원장은 “언론의 반응이 지난 몇 년 중 가장 뜨거웠다”며 “독일과 유럽인들에게 산업국가로만 인식됐던 한국이 이번 도서전을 계기로 문화국가로 알려지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총 29개의 주빈국 행사를 기획·진행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우창·이하 주빈국 조직위)도 이번 도서전이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서전이 열렸던 10월의 프랑크푸르트로 되돌아가 보자. 사실 한국의 주빈국 행사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계기로 한국의 대표 작가들이 독일 동부지역 도시에서 낭독회를 펼친 <한국문학 순회 프로그램(Litera Tour)>은 주빈국 조직위가 확정된 5개 분야(도서전, 문학학술, 전시, 공연, 스페셜 프로젝트) 29개 주빈국 행사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문학 중심의 홍보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비판이 있었고 한국 문학에 대한 인지도가 거의 없었던 리테라 투어(Litera Tour) 초창기에는 10여 명도 채 안되는 독일 청중들 앞에서 낭독회를 진행한 일도 있었지만 여름 휴가철을 제외하고 거의 매달 독일 전역을 권역별로 나눠 돌며 우리 문학을 홍보한 효과는 헛되지 않았다.

리테라 투어의 완결편으로 도서전 기간 중 메세장과 프랑크푸르트 시 일대에서 열린 낭독회에 참가한 40여 명의 한국 문인들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독일 청중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일부 작가들은 하루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소화해야 할 정도로 바쁜 날들을 보냈다.

남대문과 부채춤 등 한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장식된 전철이 도심을 지나다니며 주빈국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10월의 프랑크푸르트 시는 도서전 개막 이전부터 한국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위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린 전시장 내부전경
아래 ·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직지)」(1377)을 도입부로 한국 출판의 역사를 선보인 코너

오른쪽 페이지
주빈국관 앞 메세장 중앙에 위치한 아고라 광장. 이 곳에서 우리 전통차와 김치, 김밥, 만두 등을 시식하면서 한국문화를 다각도로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한국의 주빈국 행사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라이프치히 도서전을 계기로 한국의 대표 작가들이 독일 동부지역 도시에서 낭독회를 펼친 <한국문학 순회 프로그램>은 주빈국 조직위가 확정한 5개 분야(도서전, 문학학술, 전시, 공연, 스페셜 프로젝트) 29개 주빈국 행사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었다.

<만남-구텐베르크 이전 한국의 금속활자와 인쇄문화> (9월 29일~11월20일, 프랑크푸르트 통신박물관), <영혼의 여정-조선시대 불교회화전>과 <백자의 얼굴-조선시대 도자기전>(10월 13일~12월 18일,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박물관), 한국의 80년대 민중미술을 소개한 <The Battle of Visions>(10월 11일~12월 3일, 쿤스트할레 다름슈타트) 등 주빈국 행사로 기획된 6개 미술전시는 도서전이 열리기 이전 개막되어 독일인들에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한국미의 특징을 소개했다.

한국의 열기로 달아오른 도서전

그러나 역시 주빈국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직지에서 U-Book까지>를 모토로 내건 주빈국관 전시였다. 메세장 포럼관 2층 758평의 공간을 <메모리와 나이트 : 출판의 역사>와 <한국의 책 100 : 유비쿼터스 북스> <한국 문학의 거장들> <오늘의 책> <이벤트홀> 등 5개의 코너로 구성한 주빈국관 전시는 지난 1990년 주빈국 행사를 치른 일본에 이어 가장 성대하고 불만하게 꾸며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서전 기간 당시 외무부장관이었던 요슈카 피셔 등 독일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특히 선사시대 거석 유적(선돌)을 모티프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과 이 콘텐츠를 가공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독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유비쿼터스 텍스트(Ubiquitous Text)로 볼 수 있게 한 <한국의 책 100:유비쿼터스 북스> 코너는 18일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내외신기자 투어 때부터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한국이 자랑하는 정보기술(IT)산업의 기술력을 활용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잘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서전을 25년 간 취재해왔고 한

국문학 전문가이기도 한 독일 ZDF 방송의 문화담당 편집자 토마스 훅케는 “새롭고 다양한 개념을 한꺼번에 보여준 점에서 주빈국관 전시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앞선 현존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직지)」(1377)을 도입부로 한국 출판의 역사를 선보인 코너도 독일인들에게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줬다. 프랑크푸르트의 대표적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트 룬터샤우」는 도서전 개막전 한국의 금속활자 관련 기사를 보도했다. 위르겐 보스 도서전 조직위원장은 “자신을 포함해 많은 독일인들이 주빈국관에서 구텐베르크 이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를 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하게 됐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주빈국관 앞 메세장 중앙에 위치한 아고라 광장에선 도서전 기간 중 매일 목판인쇄와 한지 제조 및 금속활자 주조 과정이 시연돼 방문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방문객들은 이 곳에서 시연회에 참가해 직접 목판인쇄를 해보고 우리 전통차와 김치, 김밥, 만두 등을 시식하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독일에 알렸다. 국내 언론에 거의 소개는 안됐지만 주빈국 행사의 하나로 10월 15~16일, 프랑크푸르트 시청에서 <한국과 독일의 민주주의,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한·독 학술대토론회도 이틀간 매일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서 한국문화를 다각도로 체험할 기회를 가졌다. 주빈국관과는 별도로 메세장 6층 홀에 마련된 한국관(한국출판사종합관)도 주빈국 효과로 예년에 비해선 많은 서적 수입상이 찾고 저작권 계약도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보다 4배가 넘는 334평 규모의 전시 면적에 한국을 대표하는 출판사 110여 개 사가 참여해 6,000여 종, 1만여 권의 책을 전시했으며 작가 이문열 씨의 낭독회와 최재천 서울대 교수의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도서전이 끝난 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박맹호)는 잠정 집계 결과를 토대로 이번 도서전 기간 중 한국관에서 총 2,058건의 저작권 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352건 368만 8,800달러의 계약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50건 상담에 100건 100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된 것과 비교하면 저작권 상담건수와 체결건수, 계약액 등이 모두 3~4배 늘어난 것이다.

도서전을 전후해 프랑크푸르트 유명 공연장에서 진행된 8개의 공연행사 중 압권은 도서전 개막식이 열린 10월 18일 밤 알테 오퍼 프랑크푸르트 대극장에서 공연된 <개막공연 : 책을 위한 진연(進宴)>이었다. 국립국악원이 사도세자의 비었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재현한 <왕조의 꿈>을 도서전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작품으로 한국의 화려하면서도 장중한 전통복식과 궁중음악, 전통무용, 전통음식 등을 한자리에 펼쳐보여 극장을 메운 독일인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독일 원작을 한국 현실에 맞게 변안, 연출한 <록뮤지컬 : 지하철 1호선>도 도서전 기간 중 무대에 올라 독일 관객들로부터 매우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종묘 제례악>(10월 19일, 헤센방송국 콘서트홀)과 <관소리 : 심청가>(10월 8~9일, 인터내셔널 시어터 프랑크푸르트), <윤이상과 그 이후 한국의 현대음악>(10월 7일, 알테 오퍼 프랑크푸르트 모차르트홀), 퓨전 그룹 푸리의 연주회인 <푸리 인 프랑크푸르트>(10월 22일, 브로트

파브리크) 등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의 다양성을 독일에 알렸다. 국내 언론에 거의 소개는 안됐지만 주빈국 행사의 하나로 10월 15~16일, 프랑크푸르트 시청에서 <한국과 독일의 민주주의,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한·독 학술대토론회도 이틀간 매일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지금까지 한국문제를 주제로 독일에서 열렸던 학술행사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한국 측에서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강금실 인권대사 등이, 독일 측에서 한스 디트리히 겐서 전 외무장관과 테오 쾰머 「디 차이트」지 발행인 등 양국의 저명한 학자와 고위 정책입안자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의 통일전망을 놓고 수준 높은 의견들을 개진했다.

주빈국 행사의 성과와 남은 과제

한국의 주빈국 행사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 전통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이나 동남아시아를 휩쓸고 있는 한류열풍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럽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오랜 문화적 전통을 가진 나라라기보다는 20세기 후반 후진국을 탈피해 급속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근대 산업국가에 불과했다. 독일인 대다수가 「직지」가 구텐베르크의 「성경」을 앞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물이란 걸 모르는 현실에서 고은·황석영·이문열 등 한국의 대표 작가들을 낯설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1990년 일본이 주빈국을 맡았을 당시 이미 일본 책은 외국어로 1만 5,000권이나 번역된 상태였지만, 우리는 이번에 주빈국관에 전시된 <한국의 책 100>을 포함해 외국어로 번역된 책이 1,000권이 채 안됐다. 그나마 이 중에서도 독일어로 번역된 것은 100여 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빈국 행사를 통해 한국을 독일인



위 ·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열린 전시장 내부전경 가운데 · 한국의 전통 놀이문화, 독일인 관객들이 나타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번 도서전과 독일인들,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해 다시 돌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 한국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장식된 전철. 도서전 개막 이전부터 도심을 지나다니며 주빈국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위 왼쪽 · 금속활자 인쇄물인 '직지'를 보며 한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외국인들



오른쪽 · 도서전 기간 중 매일 목판인쇄와 한지 제조 및 금속활자 주조 과정이 시연돼 문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아래 · 도서전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한국의 전통사물놀이 공연을 한자리에 펼쳐보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냈다.



들이 배워야 할 점도 많은 근대국가로 인식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제에 이번 주빈국 행사를 냉정하게 반성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주빈국 행사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는 현지 반응도 그 중 하나다. 출판계가 한국관을 꾸미기 위해 모금한 17억 원을 비롯해, 주빈국 행사에 들어간 돈은 약 185억 원 정도. 국고(120억 원)와 관광기금(13억 원), 민자유치 및 기업의 현물 협찬(52억 원)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처럼 적지 않는 돈을 들였지만, “주빈국관을 꾸밀 때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지금보다 압축해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김우창 주빈국 조직위원장의 지적처럼 모자란 부분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김우창 위원장은 주빈국 행사를 준비하면서 시간부족과 문화계 역량을 보다 광범위하게 동원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문화올림픽’을 표방하지만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본질은 전 세계 도서 저작권의 약 4분의 1이 거래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 견본시(見本市)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독일 현지의 언론보도는 주빈국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행사에 집중되지만 이곳을 찾는 서적 수입상들은 사실 문화행사보다 책 거래에 집중한다. 주빈국관을 찾는 인원은 도서전 전체 방문객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도서 저작권 거래시장이란 측면에서 볼 때, 사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의 출판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위상도 이곳에선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양 위주의 행사라고 자위하기에 앞서 세계 출판계, 나아가 지식시장의 냉엄한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빈국 행사도 끝났고 한국관의 규모도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내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우리의 문학을 비롯하여, 문화를 유럽에 체계적으로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홍보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올해 프랑크푸르

트 도서전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답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란 게 문제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이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제 때, 제대로 번역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보유한 콘텐츠조차 제대로 번역해 외국에 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빈국 행사를 지휘한 황지우 총감독과 도서전 기간 중 낭독회에 참여한 작가들이 한결같이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한 것도 바로 번역의 문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이 중심이 돼 장기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또 이번 주빈국 행사를 통해 관계를 맺게 된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크푸르트 시립공예박물관 같은 한국과 독일의 문화기관들이 그동안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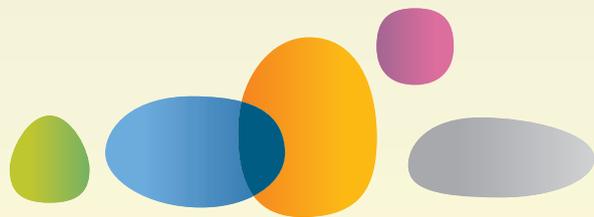
12월 13일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그뤼네브르크 공원에선 뜻 깊은 행사가 하나 예정돼 있다. 주빈국 행사 중 스페셜 프로젝트로 추진된 <한국의 정원> 준공식이다. 29개 주빈국 행사 대부분이 도서전이 열린 기간 동안 불꽃놀이처럼 소진된 반면, 올해 주빈국을 영원히 기억할 랜드마크 만들기 위해 기획된 것이 바로 <한국의 정원> 프로젝트다. 13억 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국의 정원> 조성공사는 원래 도서전 기간 중 완공을 위해선 지난 5월 착공해야 했으나 사후관리 문제를 놓고 프랑크푸르트 시와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지난 8월 22일에야 연못을 파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완공 뒤 1년간 유지비 1억 2,000만 원을 우리 측이 부담하고 이후부터 프랑크푸르트가 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두 칸짜리 정자와 누대(樓臺), 석축, 연못 2개로 구성된 <한국의 정원>이 완성되면 한국 문화의 향취를 독일인들의 심성에 깊이 스며들게 하는 공간이 될 것이란 게 황지우 주빈국 총감독의 설명이다. 독일인, 나아가 유럽인들의 심성에 깊이 스며들 제2, 제3의 <한국의 정원>이 계속 만들어질 때 한국 문화의 세계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대로 번역된 책 한권이 <한국의 정원>처럼 많은 돈을 필요치 않으면서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란 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우리의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민간 자율 기구입니다. 즉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의 융성을 통해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 얼굴(C)

<http://www.arko.or.kr>